



수소차 보급 ‘속도전’... 충전 인프라는 ‘부족’

어제 제452회 도의회 임시회 미래경제산업위 1차 회의
수소전기차 충전소 도내 1곳뿐... “차량만 보급” 질타

제주특별자치도가 4000만원에 육박하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수소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수소차 충전 인프라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13일 제452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혁신산업국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도의 수소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관련 지적들이 이어졌다.

제주도는 올해 수소승용차 보급을 위해 국비 2250만원, 도비 1700만원 등 대당 3950만원의 구매 지원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79대 지

원에 총 174대가 신청하며 2대 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수소전기차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높은 편이다. 보조금 선정자를 대상으로 한 보급은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도내에서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 그린수소충전소’가 유일한 상태로 지난해 제주시 도두동 개인택시조합 LPG충전소에 구축한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운영이 멈춘 상태이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제주시 도련동 변영로 초입에 이동식 충전소를 구축할 방침으로 내년에는 서귀포시 강정동 강창학종합경기장에 충전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기환 위원장

양경호 의원

김항국 의원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현재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며 “서귀포나 한림 등에서 수소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충전을 위해 함덕까지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도 “길게는 수년간 제주시 함덕까지 원정 충전을 다녀오거나 차량 운행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적인 모순이 발생한다”며 “구축 계획 중인 인프라 중 단 한

곳만 설치가 지연되더라도 제주도의 약속을 믿고 차량을 구입한 도민들은 속았다는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항국 의원(국민의힘, 웅담1·2동)도 “충전 인프라가 계획보다 미흡한데도 차량을 보급하고 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시내권에 충전소가 들어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수소차 충전소를 최대한 빠르게 구축하겠다”며 “다만 구매자를 대상으로 충전소 현황을 충분히 안내했기에 소비자들도 이를 감안해 선택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제주부터 도입”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 “제주 시작해 전국 확대 계획”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하는 요금제를 제주에서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워 파장이 예상된다. 일반 가정용 전기에 대해 시간대별 할증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기 사용 시간대 조정이 어려운 가정은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신중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제주 지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다는 게 정부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전기요금 체계를 손 봐야 할 필요

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피크타임 외에 나머지 시간들은 엄청나게 사실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이고, 발전 통제하느라고 재생에너지 공급도 안 받고 소위 풍력 발전도 세워놓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닌가”라며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타임에는 비싸게하는 전력요금 탄력요금제를 기후부가 준비하고 있나”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시간대별 요금제를 올 초에 바꿨다”며 “낮 시간에 태양광이 많을 때 값을 낮추고 피크시간대 가격을 높였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현재 요금 체계가 그렇게 바뀐 것이냐”라고 다시 묻자 김 장관은 “산업용만 일부 바뀌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 장관의 답변에 이 대통령은 “사실 가정용도 결국 확대해야하겠죠”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그렇다.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낮시간대 사용하는 전기 요금은 더 낮아지고, 피크시간대로 분류되는 저녁시간에 사용하는 전기 요금은 더 비싼 요금이 부과

될 전망이다. 올 초 정부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도입 방침을 밝힌 뒤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제기되자, 산업용만 해당되고 가정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앞으로 제주를 시작으로 가정용도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도입이 유력해 보인다.

서울=부미기자 bu8385@ihalla.com

안방 전국체전 앞두고 출전 걱정?

도의회 문광위 업무보고서 예산 부족 문제 도마

김봉현 “행정 책임을 왜 선수가 져야 하나” 지적

훈련비가 없어 안방에서 열리는 제 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봉현 의원(아라동갑)은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은 제주 체육의 경쟁력과 역량을 전국에 보여줄 중요한 무대”라며 “제주 중합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선수들이 예산 부족으로 출전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선수단 참가 지원 예산만으로는 대회 준비에 부족해 3억 원의 추가 예산이 요구됐지만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이 나오면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자치도 직장경기부 예산은 2022년 43억원 수준에서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인 2023년 배드민턴과 사이클이 창단되면서 6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2024년 59억원, 지난해와 올해는 57억원으로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일부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충분한 훈련은 물론 전국체전 출전 자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봉현 의원은 “행정의 운용 평가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과 증액이 제약을 받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선수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행정이 잘못된 책임을 왜 선수들이 져야 하나. 부서의 성적표가 선수들의 꿈과 출전 기회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봉현 의원은 이어 “전국체전의 성공은 경기장만 잘 준비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단 한 명의 선수도 예산 부족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가 책임 있게 추정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추가 경정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고 밝혀 자칫 안방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낮고 바라만 봐야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예산 편성 지침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추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제주자치도체육회와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위령석기자 yswh1968@ihalla.com

위성곤 지사 “제2우주센터 공모 현실적으로 어려워”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부의 제2우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공모에 대해 “여러 조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며 공모 불참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 지사는 13일 제주도청 기자회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제2우주센터 공모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2우주센터 발사시설에 필요한 조건이 427만평이라면 실제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2우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공모 중으로 현재 제주와

전남 고흥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위 지사는 “공모 기준에 따라 발사시설 주변 반경 3km 안에 민간시설을 배제해야 하는데 모호포항을 비롯해 상모 1·2·3리와 하모리 일부가 포함된다”며 “제2우주센터가 제주에 가져올 산업적 이익과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재산권 제약, 이주 가능성, 지역 갈등 등의 사회적 비용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정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며 “아직 공모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소범기자

[실제시공이미지]

[실제시공이미지]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실제시공이미지]

[실제시공이미지]

[실제시공이미지]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도상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